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항적	조계종출판사
2	붓다순례	자현	불광출판사	7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곽철환	불광출판사
3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8	항기로 온 동되어 깨달음의 환희라네	원학	김영사
4	도쿄대학 불교학과	정상교	동아시아	9	한영불교대사전	A. Charles Muller, 전옥배	운주사
5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운주사	10	위빳사나 백문백답	미하시 사야도 우소바나 이슬	



선지식의 서간에서 배운다

한암·탄허선사 서간문 1, 2권

이상하 역주 | 윤창화 해설·논고
오대산 월경사 펴냄 |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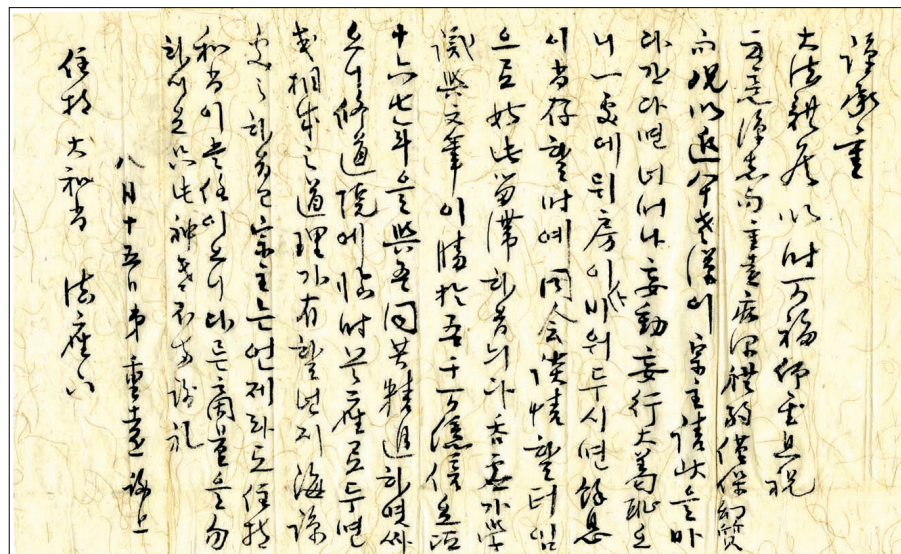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큰 업적을 남긴 고승 중에는 오대산문의 한암 스님(1876~1951)과 탄허 스님(1913~1983)이 있다. 두 분은 스승과 제자 사이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이다. 책은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 경봉, 만공, 석주, 효봉 스님을 비롯한 선지식, 그리고 재가불자들과 생전에 주고받은 서간을 찾아 엮은 것이다.

책은 총 2권으로 간행되었으며, 그 중 1권(원본편)은 원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2권(역주편)은 원문(한문)의 내용과 번역, 그리고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2권의 1부에는 한암 스님의 서간 45편을 실었고, 2부에는 탄허 스님의 서간 17편을 실었다.

한암 스님은 한말에 태어나서 일제 강점기와 광복, 그리고 6.25 한국전쟁이라는 한국 근대사의 격변기를 살았고, 무려 네 번이나 종정에 추대될 정도로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불자들에게 존중 받고 있다.

한암 스님의 제자인 탄허 스님도 일제 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불교정화, 4.19 등 격변의 역사를 살았다. 화엄학의 3대서인 화엄경과 화엄론, 청량소초를 완역했으며, 또 전통강원 교재를 완역하는 등 한국 불교 역경사와 강원 교육, 인재양성 등에 큰 족적을 남겼다.

두 선지식은 많은 법문을 통해 후학들을 지도했지만, 서간을 통해서도 후학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기에 본 출간이 의미의 깊이를 더한다. 특히 한암 스님은 경봉 스님과는 24편에 달하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간화의 방법과 오도 이후의 문제(보임, 점수, 선 사상, 수행자의 자세 등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 서간 속에서 한암 스님의 선사상과 가르침 등 여러 가지 면모를 볼 수 있다.



한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탄허 스님은 22세 때 상원사로 입산하기 전까지 2~3년 동안 한암 스님과 약 30여 편의 서간을 주고받았는데, 내용은 주로 도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한다. 입산 이전에 스승과 30여 편이라는 비교적 많은 서간을 주고 받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닐 것이다. 아쉬운 것은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 주고받은 서간이 겨우 3편만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암·탄허 스님의 서간문 소개

한암·탄허 간의 편지는 3편만 현존 원문이미지, 번역·해설 붙여
두 고승의 가르침, 삶, 오도의 경지
참선수행의 방법론 요체 담겨

한암 스님의 서간에는 불교 공부와 삶의 지침이 되는 가르침이 들어 있으며, 여성 불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순 한글로 썼다는 것이 특이하다.

‘한암·탄허문도회’와 월경사에서 한암·탄허 두 스님의 서간문을 간행하면서 가능한 원본의 모습을 전하고자 했으며, 달초, 번역 해설을 붙였다. 이는 서간 원본의 느낌을 통해 두 선지식의 진면목에 다가 보고자 한 것이며, 동시에 두 스님의 가르침이 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취지다.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 남긴 법어와 선문답, 그리고 선론(禪論) 등의 글은 대부분

본(정본 한암일발록)과(망산굴법어)에도 실려 있다. 서간문은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두 스님의 서간문은 세속인들의 서간문과는 달리 선문답이나 선수행, 법거랑 등 선(禪)을 주제로 한 대화도 적지 않다. 특히 한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보낸 서간에는 선문답이나 법거랑 외에도 깨달음 이후의 문제, 즉 ‘오후수행(悟後修行)’, ‘오후보임(悟後保任)’에 대하여 논한 것이 여러 편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글로서 한암 스님은 많은 용례와 고증을 들어가면서 오후수행, 오후보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책에서는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이 남긴 서간문을 통해 두 선지식의 가르침과 삶, 오도의 경지, 그리고 서간문의 편수와 가치, 의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이런 작업을 통해 참선수행의 방법론과 요체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하여 수행하는 이들에게 지남(指南)을 제시한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장과는 다르게 ‘염려’와 ‘살림’, ‘보담’, 그리고 ‘관심’에서 출발한 문장에는 ‘가르침’이라는 ‘주임’을 여의고도 충분한 가르침들이 심어져 있어 문자만을 앞세운 ‘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색다른 공부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책 후반부에서는 윤창화(민족사 대표)의 ‘한암·탄허 선사 서간문 고찰’을 실고 있는데, 각 서간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맺음말’에서 한암 스님의 ‘오후수행론’을 소개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중생 모두가 불국(佛國)의 주인공

유마경과 이상향

회공 강설 | 민족사 펴냄 | 2만9천5백원



“불자로서의 신앙 생활에 대한 방법론은 논한다면 <유마경> 한 권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책은 약 25년 간 일본 하나조노대학과 불교대학 B.A(京都) 일

<유마경>은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대승불교의 실천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 목적을 논한 경전이다. 한마디로 재가불교운동의 소의경전이라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관해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유마경>은 출가자가 아닌 유마경자가 경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부처님의 십

대 제자들 및 여러 보살들과 대화를 나누며 불법에 대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마경자는 해박한 교리 이해와 깊은 수행력을 갖춘 이로서, 그는 경전 속에서 핵심을 찌르는 그의 질문으로 부처님의 십대 제자들과 여러 보살들을 난처하게 한다. 이런 점이 <유마경>을 읽는 재미이며, ‘깨달음’이 출가자만의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유마경>은 본래 14장(14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14장을 총 4막으로 구성했다. 서막-유마경과 이상세계/1막-유마경자의 병과 붓다의 제자들/2막-문수보살과 유마경자의 대담/3막-붓다와의 만남/으로 구성된 <유마경과 이상향>은 각 장마다 전체적인 해설을 하고 내용에 따라 경전 번역문과 원문, 상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책은 단순한 <유마경> 해설서를 넘어 인도 대승불교사상사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앞부분 서막 ‘유마경과 이상세계’는 이 책의 정수이고 핵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세계를 두루 진단하고 현실세계를 이상세계로 만드는 방법과 보살에게는 중생계가 불국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보살사상과 대승불교의 흥기, 인도불교의 멸망, 불전문학의 르네상스, 유마경, 구마라습의 일생 등을 통해 <유마경>이 발생한 인도 사회를 총체적으

로 조망함으로써 <유마경> 이해를 돕고 있다. 교리적인 해석은 물론이고 종교 사회학적인 측면, 동서양 철학을 두루 망라해 해설함으로써 인도 종교사는 물론이고 불교교리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유마경>의 세계로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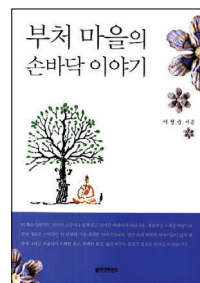
“<유마경>은 중생이 주인이 되어 이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불국의 법률서이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만나게 되는 이 한마디는 저자인 회공 스님의 메시지를 직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모두 ‘불국(佛國)’의 주인공이다. 그 세계의 성공 여부는 주인공의 관점 여하에 달렸다는 것이다.

<유마경>의 핵심 가르침은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불이법문(不二法門)이다. 이원론적인 대립적 사고를 초월하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나와 나, 진보와 보수, 더러움과 깨끗함, 선과 불선, 생사와 열반, 출가자와 재가자 등 둘로 나누어 분별하고 집착하는 데서 오는 것. 그 집착 제대로 알게 되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할 사바세계 즉 현실세계를 남의 힘 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상향, 이상세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재완 기자

우리들 살아가는 이야기가 결국 법문

부처 마을의 손바닥 이야기

이형승 지음 | 클리마인드 펴냄 | 1만5천원



“중자 스님인 칠성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짓이다. 눈을 떴을 때나 잠을 잘 때나 항상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 짓이었다. 칠성 스님은 짓을 쥐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 보통은 풍선을 묶으면 생기는 꼬들꼬들한 가자 짓꼭지를 쥐고 잔다.”

MBC극본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

고 <마을버스>, <복날이 온다> 등으로 유명한 이형승 작가가 40편의 짧은 이야기를 묶은 책이다. 40편의 이야기는 단편소설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하고, 콩트 같기도 하다. 새로운 형식의 우화집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인간 군상들의 일상을 그린 이야기들은 불교를 아는 사람이든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든 불교에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불교를 어렵게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불교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불교를 오랜 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들이 울고 웃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다시 법문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박재완 기자

철학, 역사, 문화를 중흥무진 오가며 신화에 가려진 인간 붓다의 참모습을 만나다

2012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 세계』의 저자 자현 스님이 명쾌한 언어로 흥미롭게 풀어낸 붓다의 생애!



이 책에 담겨 있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붓다와 불교 이야기

- 붓다는 4월 8일에 탄신하신 게 아니다.
- 마야부인은 7일 만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 녹야원의 첫 설법 장소는 잘못된 것이다.
- ‘자등명 범등명’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 붓다의 탑은 살아 계셨을 때도 유행했다.
- 붓다의 열반일은 2월 15일이 아니다.

불교 전문 사진작가 하지권의 인도 성지 순례 사진 100여 장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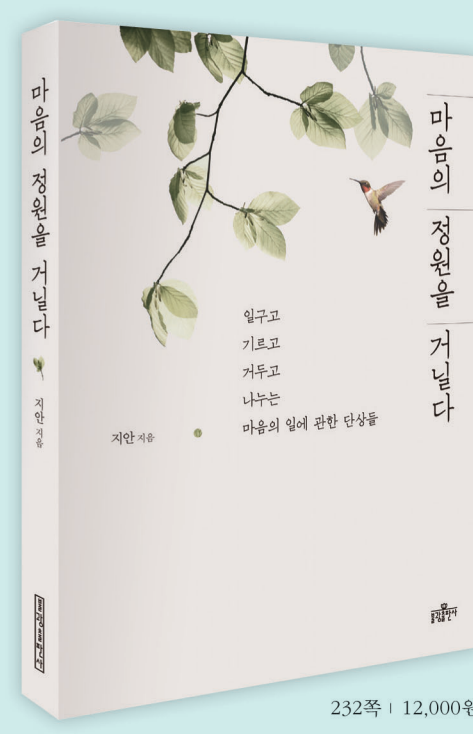
붓다순례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인간 붓다의 위대한 발자취

글 자현 | 사진 하지권 | 352쪽 | 윤성리 | 18,000원

한 10년쯤 그저 기다릴 생각으로, 자신을 믿고서 천천히 걸어라

생존 경기를 벌이고 있는 현대인에게 보내는 산속 스님의 응원 메시지



“산속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던 어느 날, 생존 경기를 벌이고 있는 현대인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제삼자의 입장을 분명히 지키면서, 누군가의 승리나 패배를 바라는 대신 경기를 벌이는 양쪽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고 싶어진 것이다.”
— ‘어느 날’ 가운데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232쪽 | 12,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